

이제는 자연으로 가야겠다

-물과 숲, 흙과 바람의 청정함을 위하여-



이 재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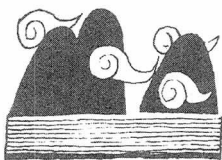
〈국립공원협회 이사·서울시 도시공원 위원〉

.....

나는 둥그런 산에 산다.
나무와 밭으로 뒤덮힌 산.
숲에서 나온 물줄기는 밭을 가로질러 산아래 들판으로 흐른다.
가끔은 구름이 네 오두막을 감싸기도 한다.

내 산엔 산갈은 무덤들이 있다.
아버지 어머니도 산에 묻혔다.
아버진 말이 없는 분이셨다.
얼굴을 본 기억이 없는 어머니 노래를 잘 부르셨다고 한다.

.....



- 유승도 『산』에서 -

산이란 이런 것이다. 자연이란 이런 것이다. 어디 한 군데 모나지 않고 둥그런 산이 변함없는 산의 참 얼굴이다. 나무와 밭(흙)으로 뒤덮힌 산-산에는 물이 있고 흙이 있고 돌이 지천이고 숲이 있으며 그들 모두는 이윽고 위대한 자연의 모태(母胎)인 대지(大地)로 이어진다.

그 들판은 눈부신 햇빛과 맑은 공기로 가득차 있다.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숲과 흙, 대기 또한 그러하다. 유승도 시인의 시어(詩語) 그대로 산에는 말없는 아버지와 노래를 잘 부른 어머니의 무덤이 있다. 산과 대지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고생 고생하다가 그냥 산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무래도 산으로 가야겠다.

오늘 우리 자연은 어떠한가. 물은 더럽혀져 물이 아니고 흙은 오염되어 흙이 아니다. 온갖 돌은 사람들이 사는 집의 갖가지 초석(礎石)으로, 정원석으로 파여 나갔고 대기는 끊임없이 스모

그에 젖어 찌들어 있으니 햇님인들 어떻게 빛을 보낼 것인가. 오늘 우리들의 산과 들이 마냥 이모양이다. 자연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다시 자연으로 가야한다.

고대의 자연사랑, 동양의 자연사랑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는 셋이 있다. 하나는 자연이요 또 하나는 신(神)이며 다른 하나는 사람이다. 서양 철학사에서 보면 고대 천년은 자연을 사랑하는 때요 중세 천년은 신을 사랑하는 때요 근대 천년은 사람을 사랑하는 때다.

서양사람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고 중동사람의 관심은 신에 있고 동양사람의 관심은 자연에 있는 것 같다. 서양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대상은 사람이다. 그들은 신들도 사람으로 표현하고 사람도 사람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동양사람

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자연이다. 신도 자연이요 사람도 자연이다. 서양사람들이 아름다움을 표시하는 조각이나 그림은 거의 다 사람이다. 반면에 동양사람의 그것은 거의 다 자연이다. 모나리자의 얼굴 미소 뒤에는 산과 들이 희미하게 보이는데 비하여 동양의 산수화는 높은 산 맑은 물에 한가로이 배한척이 떠있고 배에 탄 사람은 점하나에 불과하다. 깊은 산속 청한한 정자에는 흰 수염의 신선같은 사람이 하염없이 앉아 있다.

동양사람이 생각하는 자연의 본질은 무엇일까. 흙과 물, 불과 바람(地水火風)의 상호작용이다. 그리고 그것은 한마디로 깨끗함이다. 산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하고 공기도 깨끗하고 빛도 맑고 투명하다. 그래서 몸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하다. 하늘과 땅이 더러워지면 비가 와서 씻어 내리고 물이 더러워지면 흙에 걸러 흘러 보내고 흙이 더러워지면 불에 태워 깨끗해지고

불이 더러워지면 바람에 날려 깨끗해지고 바람이 더러워지면 비로 쓸어 깨끗해진다. 지수화풍이 서로 씻으며 돌아간다. 쓸고 닦는 것이 자연의 본질이다. 그런데 지금 이 동양적 자연의 본질이 전체적으로 더럽혀져 있다. 물은 물이 아니고 산은 산이 아니고 공기는 공기가 아니다. 이렇듯 자연이 자연이 아닌 것이다.

물은 물이 아니고 ...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저지르는 파괴적인 행위에 의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물과 공기이다. 순수한 물의 수요량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주요 수원지인 하천들은 너무나 심각하게 오염되어 썩어가며 총체적인 물부족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해 유엔환경계획(UNEP)은 '유엔이 정한 물의 날'에 즈음하여 「세계에서 연간 5백 30

만명이 오염된 물 때문에 숨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어 경각심을 고취시킨바 있다.

보고서는 수질오염으로 인해 어린이만도 8초당 1명꼴로 숨지고 물고기류의 5분의 1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또 개발도상국 인구의 절반을 비롯, 연간 33억명이 오염된 물이나 물에 오염된 음식으로 콜레라·설사·뎅기열 등 질병에 감염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현재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세계 인구가 14억명인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할 경우 2025년에는 그것이 23억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유약(柔弱)한 것이지만 자신을 등글게 할 수도, 모나게 할 수도 있으며, 외부의 힘으로 차단해도 그때마다

회복되어 환경에 적응해 버린다. 한 방울의 물이 단단한 바위를 뚫고 홍수로 모일 때는 어떤 장벽도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물의 강한 힘과 고마움을 모른 채 도처에 넘쳐나는 것이 물이라는 듯이 물을 몰쓰듯 낭비하고 더럽히고 있다.

물은 진리다. 낮은데로 겸허하게 흐르는 것이 물이다.

막히면 멎고 둥근

그릇에 담기

면 등글어지

는 부드러



움 속에 말이 없다. 하지만 천리(天理)를 거역하는 반자연(反自然)에 대한 물의 분노는 무서운 것인데도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한 채 ‘물의 길’을 외면하면서 오만한 역리(逆理)를 그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물을 함부로 쓰면서 죽여가고들 있지 아니한가. 그것이 마침내 우리 모두의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눈감은 채 말이다.

물은 창조주가 빛 다음으로 만든 자연이다. 태초의 물은 깨끗했다. 인간에 의한 자연의 파괴와 인구의 증가, 산업화는 필연적인 물의 오염을 가져왔다. 이제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 물을 살려야 한다.

숲도 숲이 아니고 …

다시 우리들의 산으로 돌아가자. 우리 민족에 있어서 산은 근원적인 그 무엇이다. 우리나라는 산의 나라이다. 우리 민족은 산에 둘러싸여 살아왔다. 해가 뜨

고 지는 것도 대개는 산과 관련이 있다. 산은 강의 시작이고 온갖 생물이 자라는 생명의 원천이며 보금자리이다. 그 산과 물과 함께 숲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행복해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 그 숲들도 죽어가고 있다.

숲에서는 물질의 순환이 끊임 없이 일어난다. 낙엽이 지고 썩어서 흙을 만들고 온갖 생물이 유기질을 분해하여 뿌리가 쉽게 양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가 성장하는 이러한 과정에는 필수적으로 물이 필요하다. 물은 숲을 키우고 숲은 물을 저장한다. 그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이다. 그래서 그것은 또한 사람과 문화를 키우는 자양소(滋養素)이기도 한 것이다. 그것들이 지금 잘려나가고 파괴쳐지고 망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숲은 그렇다 하더라도 눈을 밖으로 돌려보자. 우선 무엇보다 숲의 상징인 세계의 열대림(熱帶林)이 파괴되고 사라지려는 현상은 또한 참으로 안

타깝고 참담한 일이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열대우림 1ha안에는 평균 7백 50종의 나무, 1백 25종의 포유류, 40종의 조류, 100종의 파충류, 60종의 양서류가 살고 다시 7백 50종의 나무마다 4백여 종의 곤충이 서식한다.

중남미·아프리카·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속에 지구 생물의 50~80%가 살고 있다. 열대우림은 이렇게 존재 자체로 생물종 다양성의 보고(寶庫)이다.

그러나 20세기 초만해도 지구 표면의 16%를 차지하던 열대우림은 현재 6~7% 밖에 남아있지 않다. 지금도 1분마다 축구장 10~30개에 해당하는 열대우림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2000년대 후반이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열대우림이 사라진다면 이곳에 서식하던 6백만 종의 생물이 영원히 멸종할 것이다.

열대우림은 또한 지구의 호흡기로서 돈으로 감히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탄소를 거두어두는 역

할만으로도 열대우림의 가치는 헥타르당 수백, 수천 달러에 이른다고 가르쳐준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숲을 살리고 열대우림을 보호하지 않고 어쩔 것인가.

자연 - 그 영원한 고향

사람은 누구나 고향을 찾는다. 고향에는, 지금은 비록 헤어져있지만 이런 저런 피붙이가 살고 있고 아직은 그런대로 포근한 이웃들이 모여 산다. 지난 시절의 애환과 추억이 서려있고 무엇보다도 더불어사는 푸근함이랄까 생활의 향기 같은 것이 배어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연을 찾는다. 자연은 영원한 고향이다. 탄생의 근원이며 육신의 모태이자 회귀(回歸)의 안식처이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 항상 거기에 있지만 또한 그런 의미에서 태초로부터 억만년 미래까지 영원한 인간의 공동체이기도 하다.

공동체란 사람들이 서로 알고 함께 친하며(親和)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집합체에 속해 있다. 아무도 거기를 벗어나 살 수 없다. 직장에서는 직업공동체, 바깥사회에서는 지위공동체, 그리고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는 이웃공동체 속에서 산다. 그것을 확대해서 세계화하고 국제화하면 그것이 국제공동체요 지구공동체가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실로 거대한 실체가 있다. 그것이 바로 자연공동체이다.

사람은 그 속에서 좁쌀 한 알의 크기도 되지 않는다. 시쳇말로 뛰어야 벼룩이다. 그러니 우

리 모두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쩔 것인가. 『인간은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고 누구인가 말했다. 그런데 삶과 죽음이 함께 두려울 때 인간은 무엇을 만드는가, 무엇을 찾는가. 자연이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기에 자연과 함께 살아야 탈이 나지 않도록 돼있다. 돌아갈 자연이 더이상 파괴되기 전에 이제는 자연으로 가야겠다. 우리 모두들에게 그것이 어렵다면 우리에게 자연을 선사할 어떤 녹색운동이라도 이제 정말 불같이 일었으면 한다. ▲

